

# 전문가의 오류

김 천 사

(두산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오류들이 적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문가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범한 오류라면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이라면 지난 30년 가까이 일반인들의 호기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던 터이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에 의하여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닌 듯 하여, 차제에 이들을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Year 2000 Crisis라는 2000년 문제가 그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자리수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심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엄청난 자원과 비용을 들여야만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

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저지른 잘못이나 오류 수정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량이 아니라, 아직도 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거나,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있으니 오류에 오류를 범하는 격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電算”이란 용어 또한 오류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EDPS의 직역으로 일본인들이 만들어 낸 용어를 여과없이 받아들여 사용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찾아야 할 용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電算”이란 용어 때문에 정보문화의 확산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 “電자계算”의 줄임말이니 사람들은 “電子”와 “計算”을 떠 올리게 되고, 두가지 모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니 컴퓨터는 그저 어려운 것,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전문가들의 몫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보처리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학과, 전자공학과, 통계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면 경영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니 어찌 모순이 아니겠는가? 회계의 원칙도 잘 모르는 사람이 프로그램만 짤 줄 안

다고 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실제 있는 사실이 아닌가?

행정電算망이 전자계산만 하는 통신망은 아니며, 한국 電算원이 정부의 각종 자료를 電子計算하는 곳은 더더욱 아닐진데, 우리는 왜 이런 잘못된 오류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사용해 오던 말인데 그냥 사용하면 어떠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던데, 글썄? 잘못된 오류는 즉시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는 하드웨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과연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를 우리 전문가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하지만, 소프트웨어야 말로 합리적이고, 빈틈없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적당히, 빨리빨리, 괜찮아!”하면서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지? 컴퓨터가 이 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지?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반성하고 연구해야 할 오류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철저한 Debugging으로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들을 잡아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사회에서 전문가라 자처하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른다.